

경제관계장관회의 결
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
25-5-2-(1)
(공개)

美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

2025. 9. 3.

관계부처 합동

美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(요약)

1 추진 배경

□ **(현황)** '25.1~8월 전체 수출은 전년 수준 유지, 對美 수출은 소폭 감소

* (전체 수출) 4,540억불(+0.9%), (對美 수출) 812억불, (△4.1%)

○ 전체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견인, 집중도 심화

○ 對美 수출은 美 관세품목(품목관세) 중심으로 감소

* 1~8월 對美 수출액: 자동차 209억불(△15%), 일반기계 88억불(△16%), 철강 25억불(△16%)

□ **(전망)** 상호관세 부과(8.7)로 對美 수출 감소 전망, 기업 경영악화 우려

○ 관세로 인한 美 수요위축, 제3국의 對美 수출 감소에 따른 제3국으로의 중간재 수출감소가 수출 하방요인으로 작용

○ 관세로 인한 영업이익률 감소로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 우려

- 특히, 중소·중견기업 및 철강·파생상품(관세 50%) 등 업계 애로 증가

2 지원 방안

◇ 美 관세 피해기업 긴급 지원

① 관세 피해기업 대상 13.6조원 정책자금 지원 강화

① (산은) '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(3조원)' △0.3%p 추가 금리인하, 대출상한 10배 상향*, 지원 대상 확대**

* (現) 중소 30억원·중견 50억원 → (改) 중소 300억원·중견 500억원

** (대출 대상) 관세피해업종 → 수출다변화 업종까지 확대

② (수은) '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(6조원)' 지원요건 완화

* (지원대상) 신용등급 p5+ 이하 → p4 이하 기업까지 지원

③ (중진공) '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(0.1조원)' 대상 확대

* 기존 관세부과품목(철강·알루미늄·자동차·부품) → 신규 관세부과 품목(구리) 추가

④ (신보·기보) '위기극복 특례보증'(4.2조원) 신속 지원

②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 위해 무역보험 역대 최대 270조원 지원

- ① (피해기업 우대지원) 중소·중견 보험·보증료 60% 할인 연장(~12월)
- 對美 수출 중소·중견 대상 '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*' 신설(9월)
* 기존 보증한도에 일괄 0.5배 가산(예: 기존 한도 1배/1.5배 → 1.5배/2배로 가산)
- ② (특례지원 강화) 美 관세로 인한 재무악화 기업 대상 '특례심사'를 통해 보증요건 완화·한도 확대
- ③ (현지법인 지원) 미국 진출 현지법인 중장기 운영자금 보증상품 신설

③ 수출바우처 4,200억원 지원, 물류·컨설팅·세제 지원 강화

- ① (물류) 물류비 지원한도 3,000 → 6,000만원 상향(관세대응바우처),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 90% 감면(중소기업)
- ② (컨설팅) 관세대응 바우처 지원한도 상향(1.2→1.5억원), '관세대응 119'를 통해 美 세관 사전심사* 신청 대행
* 수출입자가 HS Code 분류, 원산지, 관세율 등 판정신청시 美 세관에서 통관 전 유권해석 제공
- ③ (세제) 철강 핵심원자재 긴급할당관세 연내 적용

④ 철강·알루미늄·파생상품 5,700억원 지원으로 품목관세 피해 최소화

- ① (이자보전) 철강·알루미늄·구리·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 신설('26)
* (이자부담경감) 중소기업 2.0%p, 중견기업 1.5%p, (대출지원효과) 1,500억원 규모
- ② (긴급자금) 피해기업 대상 긴급 저리 융자자금 편성(무역협회, 200억원)
* 美 관세 피해기업(회원사) 대상 1.5%~2.0% 금리 적용(9~12월, 무역진흥자금)
- 철강·알루미늄·파생상품 美 수출 피해기업 집중 지원
- ③ (협력사 지원) 철강 분야 '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' 신설 추진
* 수출대기업과 시중은행의 특별출연을 토대로 협력사 은행제작자금 금리 우대, 무보 보증한도 확대 등 대-중소·중견 상생협력 지원(약 4,000억원 지원효과)
- ④ (전문컨설팅) 파생상품 관세대응을 위한 함량가치 산출·증빙 지원
* 특화 전문컨설팅 제공(대한상의, KOTRA), 찾아가는 컨설팅 및 설명회 추진

◇ 내수 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

1] 국내 수요 창출로 단기 수출감소 물량 흡수

- ① (자동차) 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신규구매 시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
- ② (가전) 전국민 대상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(7월~)
- ③ (철강·이차전지)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및 ESS 보급 확대
 - * (철강) 건설·토목, 해상풍력 등에서 국산 철강재 인센티브, KS 표준 정착
 - * (이차전지) '29년까지 ESS 2.2GW 추가 설치(연 500MW 내외)

2]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 보호 강화

- ① (우회수출·덤핑 방지) 우회수출·원산지 둔갑 집중단속, 철강재 품질 검사증명서(MTC) 제출 의무화, 우회덤핑 조사범위 확대* 추진(연내)
 - * (現) '공급국내' 경미한 변경 → (改) 제3국 등을 통한 우회 유형 포함
- ② (대응체계) 조사기법 고도화*· 전문성 향상 등 무역구제 대응 역량 제고
 - * 선진국 조사기법을 분석하여 특수관계 거래, 원가미만 판매 검증 등 분석기법을 고도화
- ③ (법령정비) 보호무역조치 피해기업 지원 위한 '통상변화대응법' 개정 추진
 - * (現) FTA 피해기업, 용자·컨설팅 → 교역국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, 판로개척지원 추가

3] 자금 지원·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국내투자 촉진

- ① (투자재원) 국내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100조원 「국민성장펀드」 조성, 「소·부·장 투자지원금」 등 첨단산업 투자활성화 재원 확대
- ② (외투유치) 첨단산업·공급망 100대 전략 기업* 유치에 역량 집중
 - * (분야) ICT 10, 바이오헬스 6, 반도체 19, 화학 12 등
- ③ (유턴지원) 관세피해 기업 대상 유턴 보조금 지원비율 및 보조금 한도 상향*(~'26년 限), 입지 관련 인센티브** 확대
 - * 관세피해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보조금 10% 가산, 지원비율 상한 57→75% 상향
 - ** 기회발전특구를 지원우대지역에 추가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(최대 50→75%)

◇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

1 해외 마케팅 3,000개社, 바이어 2,000개社 유치 지원

1 (해외 마케팅) 전시회·사절단·한류박람회 등 하반기 3,000개社 지원

* 해외전시회 570개社 참가 추가 지원, 무역사절단 7→15회 확대, 한류박람회 5회 개최

2 (수출상담회) APEC 연계 역대 최대 바이어 유치(2,000개社)

* 한-APEC 비즈니스 상담회(9월, 경주), 북업 코리아 위크(10월, 전국), OKTA Expo(10월, 인천) 등

3 (국내전시회)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 지원 확대('25.下 18→68개)

* 해외바이어 대상 K-컬처(관광, 음식 등) 체험, 타지역 전시회 연계 추가 비즈니스 기회 제공

2 시장 다변화 위한 FTA 추진 가속화

1 (글로벌 사우스) 아세안·중동·중남미* 등 주요 시장과의 FTA 조기 성과 창출, 서남아·아프리카** 등 신흥시장 경제영토 확장 추진

* [아세안] 말련-태국 FTA 협상 조속타결, [중동·중남미] GCC, UAE, 에콰도르 등 FTA 조기발효

** 방글라데시, 파키스탄 등과 연내 1차 CEPA 협상 개시

2 (메가 FTA) CPTPP 가입 검토, RCEP 활용 극대화·진출 지원

3 금융·인증 지원, 비관세장벽 대응 등 新시장 진출 전방위 지원

1 (금융) 新시장 진출시 1억원 특별보증, 美→시장 다변화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한도 2배 확대('25.9월~)

- 글로벌사우스 시장개척 위한 수출보험 특별지원* 연장(~'26.6월)

* ①우량수입자 거래시 수출보험 한도 3배 확대, ②저신용 수입자 거래시 보험한도 상향(20→50만불), ③신규 바이어에 신용조사 前 제공하는 잠정한도 상향(20→30만불)

2 (인증) 해외인증 취득 실패비용 보전한도 상향(50→70%), 高비용 인증 사전컨설팅 지원서비스 신설('25.8월~)

3 (비관세장벽) AI 기반 기술규제 정보·컨설팅 제공 시스템 구축('25.下)

◇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

1 (유망품목) **한류**를 활용한 새로운 글로벌 **수출산업 육성**

① (K-콘텐츠)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거점 확대* 및 금융지원 강화**

* 콘진원 해외 비즈니스 센터 25→30개로 확대('25)

** K-콘텐츠 제작용 보증 대상 확대 (영상 → 웹툰·게임, 단기 → 중장기)

② (K-푸드) 한류 연계 마케팅 확대, FTA 활용*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

* 활방어·닭고기 등 5개 품목 FTA 원산지간편인정 품목 추가지정('25.下)

③ (K-뷰티) 전용펀드 조성* 및 주요국 유통망 진출** 지원

* '글로벌 K-뷰티 펀드' ('25.4월 출범) 400억원 신속 조성 ('25.下)

** 동남아 등 수출유망국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확대, 현지 대형유통망 진출 지원

2 (주력품목) 대외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**근원적 산업경쟁력 강화**

① (R&D) 산업별 미래 첨단분야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개발

- (자동차) AI 자율주행 핵심기술·친환경차 보급기술 개발('26년, 약 3,400억원)
- (반도체) 「온-디바이스 AI반도체」 개발 (예타면제, '25.8)
- (이차전지) 전고체, 리튬메탈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
- (바이오) AI 융합 바이오파운드리('25~'29, 1,263억원) 등 제조 전주기 혁신
- (철강) 저탄소 수소환원제철 실증 신속 추진('26~'30, 8,146억원)

② (인프라) 첨단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등 인프라 구축

- (반도체)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속 지원('26년말 국가산단·'28년 팹 착공)
- (이차전지) 원료·소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특화단지 추가지정 검토
- (바이오)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, 공공 위탁개발생산 지원

◇ 주요 산업별 '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' 수립('25.下)

* 「AI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」, 「철강산업 고도화 방안」, 「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」 등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美 관세대응 기업 지원방안	4
1. 美 관세 피해기업 단기 경영 지원	4
2. 내수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	8
3.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	11
4.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	15
III. 향후 추진계획	17

I. 추진 배경

1 수출 현황

① (전반) '25.1~8월 수출은 4,540억불로 전년도 수준(+0.9%) 유지

○ 다만, 최근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견인, 집중도 심화

* HBM·DDR5 고부가 반도체 수요 증가, 메모리가격 반등이 주요 요인

○ 반도체를 제외한 대다수 품목은 마이너스 흐름 (반도체 외 수출 Δ 2.8%)

* (기계) 314억불(Δ 10.7%), (석유제품) 299억불(Δ 15.2%), (철강) 207억불(Δ 6.8%) 등

② (對美 수출) 美 관세 영향으로 '25.1~8월 소폭 감소(812억불, Δ 4.1%)

○ 관세 대상인 자동차·일반기계·철강은 급감, 관세가 예고되어 있으나 아직 대상이 아닌 반도체·무선통신·바이오헬스는 급증

* 1~8월 對美 수출액 : 자동차 209억불(Δ 15%), 일반기계 88억불(Δ 16%), 철강 25억불(Δ 16%)
반도체 76억불(+25%), 무선통신 15억불(+90%), 바이오헬스 21억불(+32%)

2 美 관세협상 평가 및 영향 전망

◇ 상호·자동차 관세 25 → 15% 인하로 당초 대비 수출여건 개선

①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

○ 그간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계약 유예·중단 상황 개선 기대

② 對美 수출 경쟁국 대비 동등 또는 우월한 조건의 경쟁 여건 조성

○ 美 시장 경합도가 높은 일본·EU와 동일한 관세 수준 (1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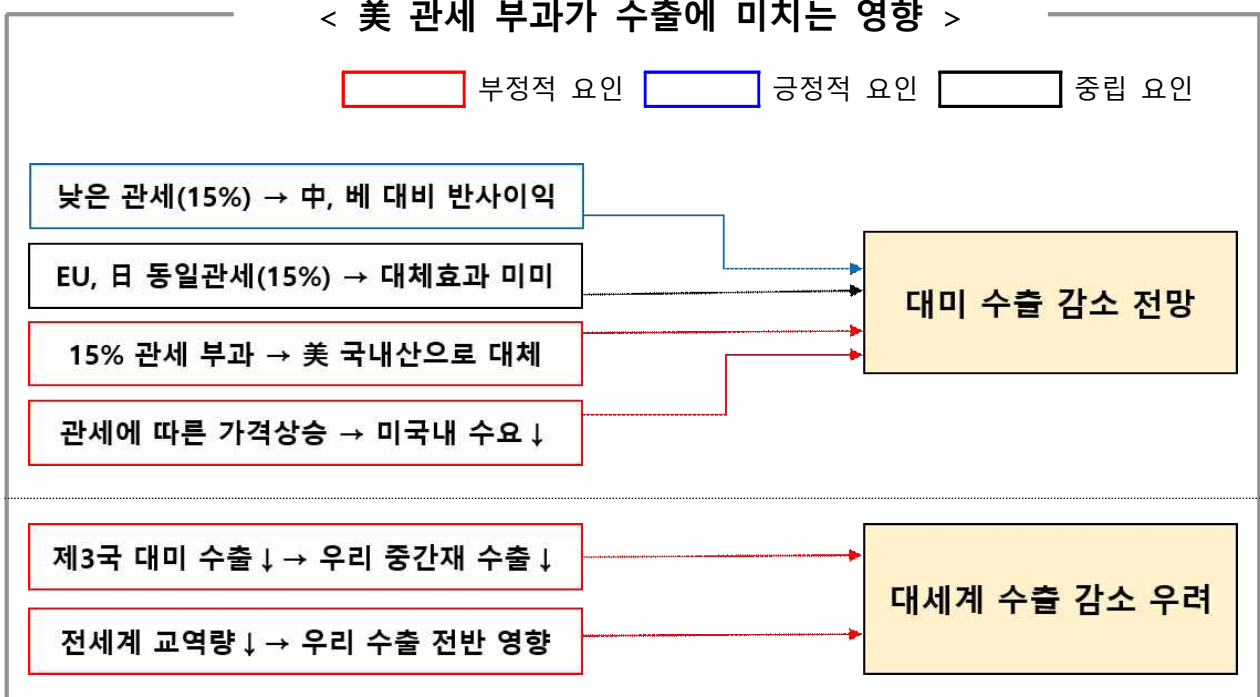
* 對美 수출 경합도(수출구조 완전일치시 1, 불일치 0) : (일본) 0.52, (독일) 0.41

○ 주요 對美 흑자국인 중국, 베트남 대비 낮은 수준의 관세율*

* (관세율) 중국 30%(협상중), 베트남 20%(협상 완료)

③ 25% 관세 부과 시나리오 대비 對美 수출은 일부 개선 전망

◇ 그러나 15% 관세 부과도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



① 관세 부담 전가, 수요 위축 등으로 對美 수출 감소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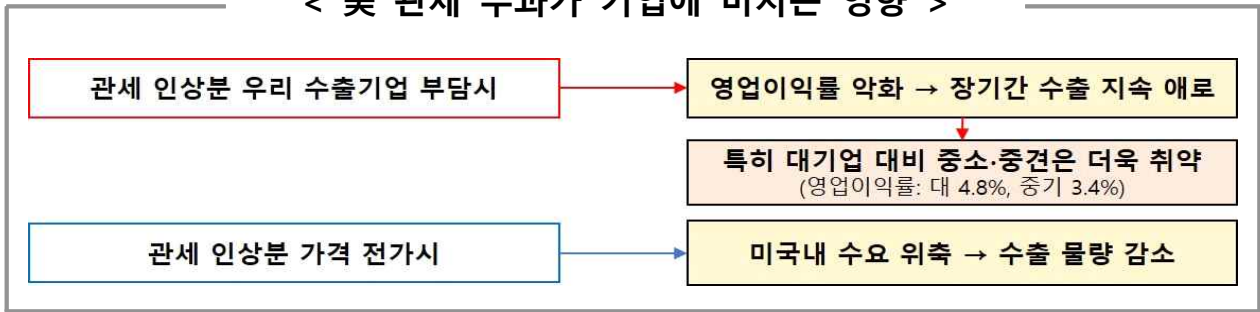
- 동일한 관세로 일본·EU 등과의 경쟁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, 美 소비자에게 관세부담 전가시 美 시장 수요 위축 가능성 존재
 - * A사는 시장 수요 유지를 위해 관세 상승분을 가격에 未반영
- 철강·알루미늄의 경우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50%이 적용되어 對美 수출 감소가 여타 품목 대비 클 것으로 예상
 - * 기계, 가전 등 철강 파생상품도 함량가치 50% 관세 적용으로 영향 확대 우려
- 자동차·부품의 경우, 15% 관세 인하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황

② 시장다변화 노력이 없을 경우, 對세계 수출도 소폭 감소 우려

- 글로벌 교역 위축, 제3국의 對美 수출 감소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데 기인

◇ 관세로 인한 영업이익률 감소로 국내기업 경영여건 악화 우려

< 美 관세 부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>



① 관세로 인한 **가격 상승분 부담**으로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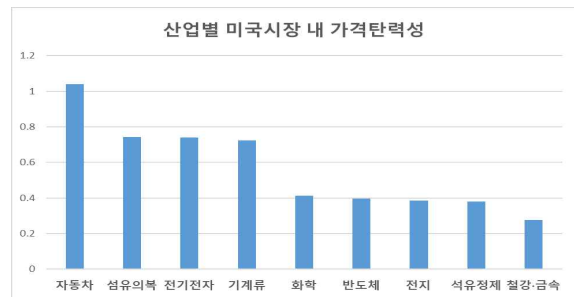
○ 수출기업이 관세 부담시 수출은 유지하더라도 영업이익 감소

* (사례) C社は 美 바이어 요구로 50:50 관세 부담, 이익 감소

○ 가격에 관세를 전가할 경우 수요 위축으로 수출 감소 우려

- 자동차, 섬유 의복, 전기전자, 기계 등 품목은 가격탄력성*이 높아 관세의 가격 전가도 쉽지 않은 구조

* 가격탄력성이 높을수록 가격상승시 수요감소 대



② 특히, **중소·중견 기업**의 경우 관세로 인한 **비용 증가에 취약**

○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, 영업이익률 감소시 경영어려움 우려

* 영업이익률('23년 기준, 한은) : 대기업 4.8%, 중소기업 3.4%

○ 최근 철강·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관세 대상 확대(8.18)로 기계·자동차 부품·가전·변압기 등 품목 중소·중견기업 애로 증가

◆ 대응 방향 ◆

- ① 중소·중견기업 단기적 경영 악화 긴급 대응
- ② 내수 창출 및 국내 산업 보호·투자 촉진
- ③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한 대체시장 진출 확대
- ④ 주력·유망 업종 수출경쟁력 강화

II. 美 관세대응 기업 지원방안

1 美 관세 피해기업 긴급 지원

- ◇ 단기적으로 중소·중견 피해기업에 자금·보험 총력 지원
- ◇ 물류·세제·컨설팅 등 애로 해소 노력 병행

1 관세 피해기업 대상 13.6조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강화

1 (산은) '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(3조원)' 금리인하, 대출상한 상향

- 기존 금리 대비 $\Delta 0.3\%p$ 추가 금리 인하
- (現) 중소 30억원·중견 50억원 → (改) 중소 300억원·중견 500억원
* 지원대상도 관세피해기업 → 수출다변화시도 기업까지 확대

2 (수은) '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(6조원)' 지원요건 완화(9월~)

- 신용등급 p5+ 이하 → p4 이하 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

3 (중진공) '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(0.1조원)' 지원 대상 확대*

* 기존 관세부과 품목(철강·알루미늄·자동차·부품)→신규 관세부과 품목(구리) 추가

4 (신보·기보) '위기극복 특례보증(4.2조원)' 신속 지원 (계속)

-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평가절차·제출서류 간소화^{기보}
* 정책우선도평가 면제, 평가지표 간소화(29→15개) 등

<관세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>

금융기관	프로그램명	내용	지원규모
산은	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	관세 피해기업 대상 2~3%대 저리 운영 자금 제공	3조원
수은	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	기업별 적용금리비 최대 2.0%p 금리인하, 신용등급 하락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	6조원
신보·기보	위기극복 특례보증	관세피해 업종 기업에 보증비율(최대 95%) 및 보증료율(최대 0.5%p) 우대	4.2조원
중진공	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	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기준 금리 0.3%p 인하	0.1조원
	긴급경영안정자금	경영난 해소 위한 운전자금 지원, 정책 자금 기준금리 +0.5%p 적용	0.3조원
계			13.6조원

②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 위해 무역보험 역대 최대 270조원 지원

* 무역보험 지원 추이 : ('23) 245조원 → ('24) 237조원 → ('25) 256조원 (2월 발표 기준)

① 美 관세 피해기업 대상 무역보험 우대지원 강화

○ 중소·중견 보험·보증료 60% 할인 연장(~'25.12)

- 품목관세 대상 → 관세적용 소 품목으로 할인 지원 대상 확대

* 100만불 이하 수출기업 8.2만개사 수출보험료 90% 특별할인도 연장(~'25.12)

○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이 수출 제작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對美 수출 중소·중견 대상 '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' 신설(9월)

* 기존 보증한도에 일괄 0.5배 가산 (예: 기존 한도 1배/1.5배 → 1.5배/2배로 가산)

② 美 관세로 인한 재무악화 기업 대상 특례 지원

연장의
목소리

S社 : 관세로 인한 매출 감소·재무 악화로 추가 수출 여력이 있음에도 대출 애로

○ 美 관세로 수출실적 부족, 재무악화 기업도 수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'특례 심사' 대상* 및 보증요건 완화·한도 확대

* 혁신성장기업, 수출초보기업, 수출급증기업, 소부장 기업 → 美 관세 피해기업 추가

○ 美 관세로 인한 피해기업 수출보험한도 2 → 2.5배로 특별 상향

③ 현지법인 대출보증 등 미국 진출기업 유동성 확보 지원 확대

연장의
목소리

Y社 : 미국 반도체 공장 납품 위해 현지법인을 운영이 필요하나 운영자금 부족

○ 美 관세에 따라 원부자재 조달비용 상승, 매출 감소 등이 예상되는 해외 현지법인 대상 장기 유동성 지원 제도* 신설 ('25.6~'26.6)

* 현지법인이 운전자금 대출시 무보가 장기 보증(최대5년) : 기업별 신용등급 등에 따라 年매출의 최대 30%까지 보증, 중소·중견기업은 보험료 30% 할인 가능

○ 미국 진출이 필요하나 현지법인 설립 여력이 없는 중소·중견 대상 지사화 사업* 지원 및 시중은행 공동으로 최대 1억원 유동성 지원

* 현지 시장조사·마케팅·판로 발굴 등 현지법인 역할 대행 (KOTRA 해외무역관)

③ 물류·컨설팅·세제 지원으로 수출기업 부담 경감

① (물류) 수출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한 지원 확대



A사 : 美 세관 원산지 확인 등 통관 소요시간 증가로 보관료 등 물류부담 증가

- 관세 피해 중소기업·중견기업 수출비용 경감을 위한 물류비 지원* 강화

* 지원한도 : (現) 3,000만원 → (改) 6,000만원 (관세대응 바우처)

지원범위 : (現) 운송비 → (改) 창고보관·배송·포장 등 물류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

- 중소기업 대상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 90% 감면(KOTRA)

- 미국 내 화장품 물류센터 신규 구축으로 현지 유통지원(26, 2개소) **복지부**

② (컨설팅) 관세대응 위한 수출바우처 4,200억원 지원 (25.8~26) **산업중기농림해수부**

- 관세대응 바우처 발급한도 1.2 → 1.5억원으로 상향 (25.8월~)

-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바우처 발급 소요 기간 대폭 축소 (45일→3일)

* 예) 직수출액 200만불 이상, 부채비율 400% 미만 등 요건 만족시 적용

- '관세대응 119'를 통해 美 세관 사전심사* 신청 대행 지원 (25.7월~)



M협회 : 관세적용 품목 HS Code, 원산지, 관세율 등 공식적 유권해석 필요

* 수출입자가 HS Code 분류, 원산지, 관세율 등 판정신청시 美 세관에서 통관 전 유권해석 제공

③ (세제·세정) 핵심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, 국제 납기연장 등 기업부담 축소

- 철강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연내 적용하고 자동차,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도 적용 검토(26~) **기재부**

- 피해기업 법인·부가·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 **국세청**

- 수입원자재 부담 경감을 위해 보세공장 내 생산품 과세 신청 시점을 기업이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도록 허용 **기재부·관세청**

* (現) 원료 사용 전 신청 → (改) 제품생산 후 수입신고 전 신청 허용

4 철강·알루미늄·파생상품 특화지원으로 피해 최소화

* 철강·알루미늄 파생상품 주요 수출품목 : 기계, 가전, 자동차·부품, 변압기 등

1 철강·알루미늄·파생상품 피해기업 대상 1,700억원 지원

H社 : 철강·알루미늄·파생상품은 50% 품목관세로 영업이익 악화 우려

- 철강·알루미늄·구리·파생상품(기계 등) 이차보전사업 신설('26년)
 - * (이자부담 경감) 중소기업 2%p, 중견기업 1.5%p, (대출지원효과) 1,500억원 규모
- 美 관세 피해기업 전용 긴급 저리 융자자금 편성(무역협회, 200억원)
 - * 美 관세 피해기업(회원사) 대상 1.5%~2.0% 금리 적용 (9~12월, 무역진흥자금)
 - 철강·알루미늄·파생상품 美 수출 피해기업 집중 지원
- 기계 中企 美시장 입찰·계약·지급 보증수수료 50% 감면(자본재공제조합)

2 철강 공급-수요 기업 간 공급망 상생을 위한 협력 강화

C社 : 협력사의 경우 납품 감소 및 납품단가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 우려

- 철강 분야 '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' 신설 추진 ('25.下)
 - * 자동차·부품사 협력모델(현대차-하나은행-무보 협력 MOU 체결, 8.18) 확산 추진
 - 수출대기업과 시중은행의 특별출연을 토대로 협력사 은행제작자금 금리 우대, 무보보증한도 확대 등 상생협력 지원 (약 4,000억원 지원효과)

3 파생상품 관세대응을 위한 함량가치 산출·증빙 컨설팅 지원

J社 : 철강·알루미늄 함량가치에 따라 관세액이 다르나, 함량 산출 및 증빙 등 애로

- 철강·알루미늄 파생상품 특화* 전문 컨설팅 지원(대한상의, KOTRA)
 - * 철강·알루미늄 함량가치 증빙, 관세율 계산, 통관서류 작성, HS 재분류, 원산지 증빙 등
 - 주요 산업단지에 '찾아가는 컨설팅*' 실시, 1:1 밀착 지원('25.8월~)
 - * 파생상품 생산 업종이 밀집한 산단 중심, 릴레이 운영(1차 8.26 창원, 2차 9.3 대전)
- 기계 업종별 파생상품 설명회 및 함량가치 계산 사례집 배포(기진회)

2 내수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

- ◇ 국내 내수시장 확대로 해외수요 감소 보전
- ◇ 제3국 제품의 불공정한 무역으로부터 우리기업 보호
- ◇ 투자 촉진을 통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 노력 지속

1 국내 수요 창출로 단기 수출감소 물량 흡수

- ① (자동차)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,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교체 유도
 - 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신규구매 시 전환지원금 추가지급('26) ^{환경부}
 - 금년 교체 예정인 공공 업무차량을 3분기까지 100% 교체 유도
- ② (철강) 건설·토목 등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
 - 건설·토목, 해상풍력 등에서 국산 철강재 인센티브, KS 표준 정착
 - 자동차·조선 등 수요산업 연계 성능한계 극복 특수탄소강* 개발 지원
* 철·탄소 외에 특정 합금 원소(크롬, 니켈 등)를 첨가하여 특수성능(고강도·고내식 등) 구현
- ③ (가전) 전국민 대상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(7월~)
 - TV, 냉장고, 에어컨, 세탁기 등 11대 가전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% 환급
- ④ (이차전지) ESS 보급 확대, 수요창출 R&D 및 실증
 - '29년까지 ESS 2.2GW 추가 설치(연 500MW 내외)
 - 방산·선박·로봇 등 수요맞춤형 R&D 및 실증 지원
- ⑤ (기계) 지역별 필요 노후 기계장비 교체 지원
 - 기업 수요를 토대로 지역별 공용 R&D 장비 업그레이드 및 교체

2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 보호 강화

1 '무역안보특별조사단' 활동 강화를 통해 불법적인 우회수출 차단^{관세청}

- 무역안보특별조사단* 중심 우회수출·원산지 둔갑 집중 단속

* 관세청 본청 특별조사팀 및 전국 본부세관 10개 전담 수사팀 운영

- 고율 관세가 부과된 주변국으로부터의 수출입·환적 동향 모니터링* 강화, 美 등 해외 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 협력 확대

* 원산지 조작·우회수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(예: 철강·알루미늄류) 분석·점검

2 국산 원산지증명 강화로 對美 우회수출 오인 방지

- 철강재 수입시 제품 품질과 조강국 확인이 가능한 '품질검사증명서(MTC)' 제출 의무화 (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, 연내)

3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 대응 체계 강화

- 최근 덤핑조사 신청 증가, 사건 대형화에 적기조사·피해구제 강화
- 조사기법 고도화*·전문성 향상 등을 통한 무역구제 대응 역량 제고

* 선진국 조사기법을 분석하여 특수관계 거래, 원가미만 판매 검증 등 분석기법을 고도화

4 관세법령상 '우회덤핑' 규율 대상 확대 (25.下)^{기재부·산업부}

- 우회덤핑 조사범위 확대* 등 반덤핑조치 실효성 강화 추진

* (現) '공급국내' 경미한 변경 → (改) 제3국 등을 통한 우회 유형 포함

5 보호무역조치 피해기업 지원 위한 '통상변화대응법' 개정 추진

<통상변화대응법 개정방향>

현행	개선 방향
· (대상) FTA 체결로 인한 피해기업 · (지원) 용자·컨설팅 지원	· (대상) <u>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</u> 추가 · (지원) <u>판로개척 지원</u> 등 추가

③ 자금 지원 ·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국내투자 촉진

① 첨단산업 투자·생산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기재부·금융위·산업부

- (투자) 국내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100조원 「국민성장펀드」 조성, 「소·부·장 투자지원금」 등 첨단산업 투자활성화 재원 확대
 - 소·부·장 기업 대상 투자지원금 신속 집행 추진*('25년 700억원)
 - * (7.23) 사업 공고 → (~9.12) 투자 계획 접수 → 첨단위(12월)에서 지원 대상 확정
- (생산) 50조원 「공급망안정화기금」으로 시설·구매자금 지원('24~'29년)

②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외국인투자 지원

- (외투유치) 첨단산업·공급망 100대 전략 기업* 유치에 역량 집중
 - * (기업분야) ICT 10, 바이오헬스 6, 반도체 19, 화학 12 등
 - 매년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여 유치 대상 리스트 최신화
- (인센티브) 현금지원 활용하여 글로벌 선도기업 비수도권 입지 유도
 - * (현금지원) FDI 일정비율을 최대한도(40~50%) 내 지자체와 매칭지원('25년 2,190억원)
 -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외투기업의 비수도권 유치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현금지원 우대 상향 등 검토

③ 인센티브 확대·순주기 지원를 통한 국내복귀 투자(유턴) 활성화

- (인센티브) 관세피해 기업 대상 유턴 보조금 지원비율 및 보조금 한도 상향* (~'26년 限), 입지 관련 인센티브** 확대
 - * 관세피해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보조금 10% 가산, 지원비율 상한 57→75% 상향
 - ** 기회발전특구를 지원우대지역에 추가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(최대 50→75%)
- (지원체계) 주요 무역관 내 핫라인 설치 및 1:1 순주기 밀착 지원
 - * (국내) 유턴제도 홍보·간담회, (해외) 현지 기업 방문 유치 활동 추진

3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

◇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노력 적극 지원을 통해 수출 모멘텀 유지

1 대체시장 발굴, 기회시장 진출 지원 확대

1 시장 다변화를 위한 현지 네트워킹·마케팅 3,000개사 지원

○ 전시회·사절단·한류박람회 '25년 하반기 지원 확대

* 해외전시회 570개사 참가 추가 지원, 무역사절단 7→15회 확대, 한류박람회 5회 개최

○ 수출지원기관 해외거점 12개 신설로 선제적 네트워크 확보('25)

* (코트라)멕시코·조지아, (무보)미국, (무협)베트남·브라질·남아공·멕시코·사우디·싱가포르 등

2 APEC 연계 대규모 수출상담회로 역대 최대 바이어 2,000개사 유치

○ 2025 한-APEC 비즈니스 상담회(9월, 경주) 개최로 전세계 바이어 초청

○ APEC 연계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 '봄업 코리아 Week' 개최(10월, 전국)

* 전자전·반도체대전, 조선해양산업전, 대구 ICT융복합엑스포 등 전국 20여개 지역 전시회 연계

** 'OKTA Expo(10월, 인천)' 연계로 국내기업과 교포 무역인 간 수출도 증개

3 지역 전략산업 연계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 지원 확대('25.下 18→68개)

○ 바이어 대상 K-컬처 체험, 타지역 전시회 연계 추가 비즈니스 기회 제공

○ 주요 산업전시회(전자·반도체·로봇 등)와 연계한 산업AI 대표 전시회 육성('26)

4 시장별 기회요인*을 활용한 '30대 전략 프로젝트' 본격 추진('25.下~)

* ① (공급망 재편) 인도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 장비부품 공급, ② (한류 확산) 베트남 온오프 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, ③ (인프라 수요) 아제르바이잔 전쟁복구지역 변전소 건설 등

○ 프로젝트별 유망기업 발굴, 맞춤형 전략 수립 위한 전담 멘토링팀 구성('25.下)

○ 참여기업 대상 프리미엄 마케팅·인증·R&D·특허·금융 원스톱 지원('26~)

② 시장 다변화 위한 FTA 추진 가속화 · 활용도 제고

① 글로벌사우스 시장 선점을 위한 FTA 적극 확대

- 아세안·중동·중남미 등 주요 시장과의 FTA 조기 성과 창출
 - * [아세안] 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·태국과의 FTA 협상 조속 타결
 - [중동·중남미] 기타결한 GCC, UAE, 에콰도르, 과테말라 등과의 FTA 조기 발효
- 서남아·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신흥시장 경제영토 확장
 - * 방글라데시, 파키스탄 등과 연내 1차 CEPA 협상 개시
 - * 아프리카(모로코, 탄자니아), 남미(메르코수르) 등과 FTA 협상 여건 마련 추진

② CPTPP·RCEP 등 메가 FTA 활용을 통한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

- 유사입장국간 경제동맹 네트워크 확보 위한 CPTPP 가입 검토
 - * [가입실익] 경제성장(GDP 0.38%p ↑), 멕시코 신규 시장 확보, 핵심광물 협력 강화
 - [고려사항] 농수산 등 취약분야 지원대책 마련 및 이행관계자 소통 등 추진 필요
- 아태지역 수출기업 설명회를 통해 RCEP 활용 극대화·진출 지원
 - * 역내 기업 대상 '한-아세안 통상포럼' 개최, RCEP 단일원산지 규정 등 활용방안 설명
↳ '25년 베트남(4.4, 하노이), 태국(4.23, 방콕) 등 개최

③ FTA 이행·활용 강화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

-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획기적 개선으로 수출 역량 제고
 - *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(유관기관 인증허용 등), 취약업종·기업 타겟팅 FTA 활용 교육 등
- 수출기업 원산지관리업무(원산지판정,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) 간편화를 위한 원산지관리시스템(FTA Korea) 활용 교육·컨설팅 제공
 - * (교육) '25년 정기교육 12회, 지역별교육 33회 추진
 - * (컨설팅) 수출기업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 상호연계 종합컨설팅('25년 27개사)
- 상대국과의 FTA 이행 채널을 통해 통관·지재권 등 기업애로 해소
 - * 관세청·국표원·코트라와 애로발굴 체계 구축, 193개 분과별 이행위(통관 등) 활용

③ 국가별 정책에 따른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시장 공략

① (글로벌 사우스) **新산업 수요·프로젝트 연계** 수출확대 기반 마련

- (아세안) 경제성장·도시화 정책 및 한류 열풍 활용 수출 지원
 - * 협력 성숙국(베트남, 인니), 경험 유망국(태국, 말련 등), 잠재 협력국(캄보디아 등)별 협력 현황·잠재력·발전 수준 등을 고려한 전략적 협력 추진
- (인도) **첨단산업(AI·우주 등) 육성 및 투자유치** 정책 연계 신규 협력 확대
 - * 한-인도 산업협력위원회(장관급) 설치(~'25.下)를 통해 인도 진출기업 지원 강화
- (중동) **AI·첨단기술 협력 강화 및 신규 전력 인프라·기자재 수주** 지원
 - * 한-사우디 비전 2030委, 한-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등 정부 간 협력 채널 가동
- (중남미) **車·가전 등 산업협력*** 강화, **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확보**
 - * (멕) 무협-COMCE(멕 무역투자위) 경험위('25.下) (브) 한경협-CNI(브 전국산업연맹) 경험위('25.下) 등

② (선진 시장) 주요국 **경제·산업정책** 기반 **맞춤형 수출전략** 추진

- (미국) 반도체, 조선,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협력 활용 시장 진출
 - * (반도체) '한미 AI 반도체 혁신센터' 기능 강화(입주기업 확대 5→10개, 법률자문 지원 등)
 - ** (조선) 선박 건조, MRO,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한 '한미 조선 협력사무소' 개설 추진
- (EU) **환경규제 확대 추세에 대응, 수출기업 대응역량*** 강화
 - * 'FTA·통상종합지원센터'와 '환경규제 전문기관(청정센터 등)' 협업을 토대로 수출기업의 환경규제 정보 신속 제공 및 수출애로 해결 지원('25.下~)
- (중국) **내수 진작 정책 및 사회구조 변화**를 고려, 마케팅 세분화
 - * 실버경제, 독신경제, 여성경제 등 다양한 소비그룹 등장에 따라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수출·판촉 마케팅 전개
- (일본) **디지털·그린전환(DX, GX) 정책** 관련 프로젝트 참여기회 확대
 - * 산업별 전시회 참가 및 양국 기업간 매칭 기회 제공 등 수출 네트워크 구축 지원

④ 금융·인증 지원, 비관세장벽 대응 등 新시장 진출 전방위 지원

① (금융) 적극적 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원

- 글로벌 사우스 개척을 위한 수출보험 특별지원* 연장(~'26.6월)
 - * ①우량수입자 거래시 수출보험 한도 3배 확대, ②저신용 수입자 거래시 보험한도 상향(20→50만불), ③신규 바이어에 신용조사 前 제공하는 잠정한도 상향(20→30만불)
- 가전·소비재 등 해외 소비 성수기 수출보험 한도 한시 상향(최대 30%)
 - * 블랙프라이데이, 성탄절, 디왈리(인도), 광군절(중국) 등
- 新시장 계약 체결시, 계약서만으로 최대 1억원 특별 보증한도 제공
- 美→시장 다변화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* 한도 2배 확대('25.9월~)
 - * 수출채권을 담보로 한 시중은행 대출시 무보가 보증

② (인증·특허) 새로운 시장 진출시 인증지원 확대, 신속 특허심사 제공

- (인증) 신속한 인증획득 지원 위한 '해외 인증 원스탑 서비스*' 지원
 - *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, 사후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지원



A협회: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를 하려고 해도 신규 인증 취득에 長기간, 高비용 소요

- 수출마우처 해외규격 인증 취득 실패비용 보전한도 상향(50→70%)
- 의료기기(FDA) 등 高비용 인증 사전컨설팅 지원서비스 신설('25.8월~)
- (특허) 수출기업 국내 특허·상표 출원 '초고속심사(2→1개월)' 도입('25.下) ^{특허청}
 - 바이오헬스 해외특허 등 전문 컨설팅 지원 확대('25년 6社→'26년 40社) ^{복지부}

③ (규제대응) 기술·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극복 지원

- AI 기반 기술규제 정보·컨설팅 제공 시스템 구축('25.下) ^{국표원}
- FDA·MDR(유럽의료기기지침) 등 규제대응 지원('26년 45社, 90억원) ^{복지부}
- CBAM 대응을 위한 '탄소배출량 유통·관리지원 시스템' 개발('25.下) ^{관세청}

◇ '민관합동 수출 현장지원단' 가동으로 수출 현장애로 밀착 지원

4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

◇ 수출 유망품목 확대,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로 튼튼한 수출구조 확립

1 [유망품목] 한류, ICT 등 새로운 글로벌 수출산업 육성

1 (K-콘텐츠)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거점 확대 및 금융지원 강화

- 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25개소 → ('25) 30개소로 확대 문화부
 - 장르별 해외 진출 단계*에 따른 현지 협업 등 쏠 주기적 지원
- * 콘텐츠 제작 → 현지 유통·판매 → 부가가치를 활용한 지속 수익 창출
- K-콘텐츠 제작용 대출보증 대상 확대 (영상 → 웹툰·게임, 단기 → 중장기)

2 (K-푸드) 한류 연계 마케팅 확대, FTA 활용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

- 한류 연계 신흥시장 중심 K-푸드 마케팅 확대 추진 농식품부·해수부
 - * K-박람회('25.11월, UAE), '이달의 K-Food' 콘텐츠 및 k-김 다큐멘터리 송출 등
- 활방어·닭고기 등 5개 품목 FTA 원산지간편인정* 품목 추가지정('25.下) 관세청
 - * 입증서류 간소화 : 8종 → 1종(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 등 유관기관 발급 인정서)

3 (K-뷰티) 전용 펀드 조성 및 주요국 유통망 진출 지원

- '글로벌 K-뷰티 펀드' ('25.4월 출범) 400억원 신속 조성 ('25.下) 중기부
- 글로벌·글로벌*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디지털 마케팅 지원 확대, 빅바이어 발굴 등 통해 현지 대형유통망 진출 지원 산업부·중기부·복지부
 - * (동남아) 베트남 최대 온라인 플랫폼 쇼피, (중남미) 최대 유통망 Mercado Libre 등

4 (ICT 서비스) AI·디지털 서비스 유망기업 수출기업화 지원

- 'AI 혁신펀드' 확대(900억원 → 3,000억원) 과기부
 - * AI 기반 제품·서비스, AI 반도체·인프라, AI 모델 등 AI 산업 전반에 걸친 투자
- 에듀테크 등 유망 서비스 모델 현지화, 파트너 발굴 등 집중지원 산업부
 - * 해외로드쇼 지원, 지적권 이슈 지원, 진출전략 컨설팅 등

② [주력품목] 대외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 산업경쟁력 강화

① 산업별 미래 첨단분야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개발

- (자동차) SDV 기반 AI 자율주행 핵심기술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기술* 개발('26년 약 3,400억원)
 - * 수요맞춤형 다목적 전기차, 수소엔진차, 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 등
- (반도체) 「온-디바이스 AI반도체*」 개발(예타면제, '25.8) **산업부** 및 국산 AI반도체(NPU, PIM 등) 기술 고도화·실증** 지원('26년 2,679억원) **과기부**
 - * 자율주행차 등에 제품에 탑재돼 클라우드와 연결 없이도 AI 연산이 가능한 반도체
 - ** '26년 AI반도체를 활용한 K-클라우드 기술개발 608억, AI반도체 실증지원 1,024억 등
- (이차전지) 전고체, 리튬메탈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
 - * 차세대 배터리 소재 및 셀 기술 개발 등('23~'28년, 1,824억)
- (바이오) AI 융합 바이오파운드리* 구축 등 제조 전주기 혁신**
 - *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('25~'29, 총 1,263억원)
 - ** 'K-바이오 이니셔티브' 추진(후보물질 도출-제조공정 개발-스케일업·실증 등, 예타신청 계획)
- (철강) 저탄소 수소환원제철 실증* 신속 추진
 - *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: 총사업비 8,146억원, '26~'30, 6.26일 예타 통과

② 첨단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등 인프라 구축

- (반도체)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속 지원('26년말 국가산단·'28년 팹 착공)
 - 한전·수공 등 공공기관이 기반시설에 '36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자
- (이차전지) 원료·소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특화단지 추가지정 검토
 - * 추진 일정 : 특화단지 추가 모집 공고('26년) → 첨단위 지정 의결(3~5개월 소요)
- (바이오)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, 공공 위탁개발생산 지원
 - * '26년 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대전(76.9억원), 강원(5.6억원) 도로건설 예산 지원 추진중

◇ 주요 산업별 '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' 수립('25.下)

* 「시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」, 「철강산업 고도화 방안」, 「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」 등

III. 향후 추진계획

정책 과제	소관부처	추진 시기
1. 美 관세 피해기업 긴급 지원		
▶ ^{산은} 저리운영자금 대출한도 상향, 금리 인하 ^{수은}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요건 완화	금융위/기재부	'25.9~
▶ ^{중진공}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지원대상 확대	중기부	'25.8~
▶ 보험·보증료 할인 등 무역보험 우대지원 강화	산업부	~'25.12
▶ ^{무보} 재무악화 기업 대상 보증요건 완화, 한도 확대 등 특례 지원	산업부	'25.8~
▶ 해외 현지법인 대상 장기 유동성 지원제도 신설	산업부	~'26.6
▶ 물류비 지원확대 및 공동물류센터 사용료 감면	산업부	'25.9~
▶ 미국 내 화장품 물류센터 2개소 신규 설치	복지부	'26
▶ 관세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 4,200억원 지원	산업부/중기부/ 농식품부/해수부	'25.8~'26
▶ 美 세관 사전심사 신청 대행 지원	산업부	'25.7~
▶ ^{무협} 美 관세 피해기업 긴급 저리 융자자금 편성	산업부	'25.9~
▶ 철강·알루미늄·파생상품 이차보전 사업 신설	산업부	'26~
▶ 철강·기계분야 수출공급망보증 상품 신설	산업부	'25.下
▶ 철강 등 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·증빙 컨설팅 지원	산업부	연중
2. 내수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		
▶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마련	환경부	'26
▶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	산업부	'25.7~
▶ 우회수출 차단을 위한 '무역안보특별조사단' 활동 강화	관세청	연중
▶ 철강재 수입시 품질검사증명서(MTC) 제출 의무화	산업부	'25.下
▶ 우회덤핑 규율 대상 확대	기재부/산업부	'25.下
▶ 국민성장펀드 조성	기재부/금융위/산업부	'25.12~
▶ 유탄보조금 지원한도 및 보조금 한도 상향	산업부	~'26
3.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		
▶ 전시회·사절단·한류박람회 지원확대	산업부/문체부	'25.下
▶ APEC 연계 대규모 수출상담회 개최	산업부	~'25.11
▶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 지원 확대	산업부	'25.下
▶ 글로벌사우스 수출보험 특별지원 연장	산업부	~'26.6
▶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한도 확대	산업부	'25.9~
▶ 고비용 인증 사전컨설팅 지원서비스 신설	산업부	'25.8~
▶ 수출기업 특허·상표 출원 '초고속심사' 도입	특허청	'25.下
▶ AI 기반 기술규제 정보·컨설팅 제공 시스템 구축	산업부(국표원)	'25.下
▶ 탄소배출량 유통·관리지원 시스템 개발	관세청	'25.下
4.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		
▶ 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확대	문체부	~'25
▶ FTA 원산지간편인정 품목 추가지정	관세청	'25.下
▶ 글로벌 K-뷰티 펀드 조성, AI 혁신펀드 확대	중기부/과기부	'25.下
▶ 미래차, 수소환원제철, 바이오 등 기술개발 추진	산업부/과기부	'26~
▶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, 바이오 특화단지 등 인프라 구축	산업부	연중